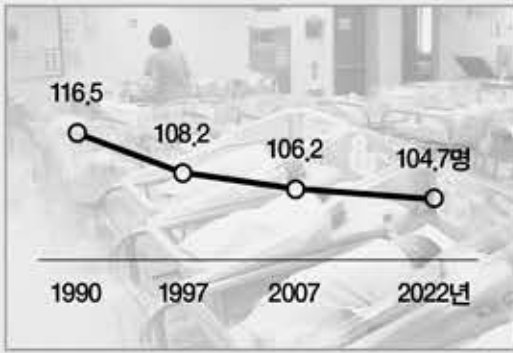


작년 남아 출생비율 역대 최저



▲ 출생아 딸 100명당 아들 추이(2022년은 잠정치)
자료=통계청

지난해 출생아 중 남자아이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남아 선호 사상' 이 옛말이 되고 있다.

1일 '서울경제'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 지난해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가 104.7명 태어났다는 얘기다. 이는 집계 시점(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의 감소는 꾸준히 이어졌다. 1990년 116.5명에 달했던 출생성비는 점차 낮아져 1997년(108.2명) 처음 110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안정적으로 100명대를 유지했고, 2007년(106.2명) 정상 범위(103~107명) 안으로 진입했다. 사실상 성비 불균형이 해소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총 출생성비뿐만 아니라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으로 나눠 본 출생 순위별 출생성비도 모두 정상 범위 안이었다. 첫째아 출생성비는 104.8명으로 전년보다는 0.5명 줄었고, 둘째아 출생성비는 104.6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특히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전년보다 1.1명 감소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인 105.4명을 기록했다.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간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첫째아보다 훨씬 높았다.

남자가 대를 잇는다는 유교적 사회 관념이 희미해지며 남아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고 제도적으로도 호주·호적 폐지로 양성의 권리가 대등해졌다는 분석이다.

작년 실질임금 사상 첫 '감소'

한국에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실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올해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세전)은 386만9,000원으로, 전년(368만9,000원)보다 18만원(4.9%)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전년(359만9,000원)보다 7,000원(0.2%) 줄었다. 연간 월평균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2.0%)부터 12월(-1.9%)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가 치솟으면서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계속 팍팍해진 것이다.

특히 실질임금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549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반면 300인 미만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21만4,000원으로 0.6% 줄었다.



▲ 지난해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사진=shutterstock

이는 통장에 찍힌 300인 이상의 월평균 임금총액(592만2,000)이 6.1%, 300인 미만(346만2,000)이 4.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두드러진 것이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실질임금 감소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상승률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3.5~3.9%)를 넘지 않는다면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가격 16개월 연속 하락

수개월째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쌀 가격만 지속 하락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공급량은 늘어난 반면, 쌀 소비량은 지속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풍년의 역설'이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상품 등급 쌀 20kg의 도매가격은 지난달 월 평균 4만6,909원으로 전년 동월(5만2,231원) 대비 10.2%(5,322원) 하락했다.

쌀 가격은 2021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으로 전환한 뒤 지난 1월까지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시장에서의 거래 흐름을 보면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하락이 확실시되는 상태다.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지난해까지 2년 간 풍

작으로 수확량이 늘어난 데다 밥을 적게 먹으면서 수요감소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50만7,000t이었던 쌀 생산량은 이듬해인 2021년 388만2,000t로 10.7%(37만5,000t) 증가했다. 지난해 생산량(376만4,000t)은 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풍작이었다.

반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계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64.7kg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매년 감소해 왔는데, 지난해 소비량은 30년 전(124.8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